



광주의 새 야구장인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가 오는 3월8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새 야구장 개장식 '주인 없는 잔치'

3월 8일 KIA는 대구서 시범 경기 레전드·연예인팀 등 연습경기 추진

‘주인 없는 잔치나, 랜드마크의 시작점이나.’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가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월24일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난간 재공사 등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수정하느라 완공이 미뤄진 상태다.

광주시는 마지막 손질을 끝낸 뒤 오는 3월 8일 정식 개장식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 역사의 출발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광주시민과 전국의 KIA 팬이 오래도록 기다렸던 순간을 놓고, 개장식이 적절한 날에 열리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개장식이 열리는 3월 8일은 2014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개막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KIA는 이날 대구로 건너가 삼성과 원정경기를 치른다. 개장식과 시범경기 개막 날짜가 겹치면서 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틀 뒤 경기장을 사용하게 될 주인공이 빠진 ‘반쪽 행사’라는 의견과 개장식은 말 그대로 개장식이라며 경기장 준공식 자체에 비중을 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KIA 팬들은 “경기장의 주인공은 선수인데 정작 경기를 하는 이들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들이 처

음으로 새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면서 새 출발을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시의 입장은 다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개장식은 준공식을 겸해서 하는 것이다. (KIA)선수들이 참여하면 더 눈길을 끌고, 관중 동원에도 도움이 되겠다”면서 “시범경기가 오후 1시부터 열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야구장의 의미를 부여한 프로그램 만들 수가 없다. 시범경기는 시범경기대로 개장식은 개장식대로 다루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건물이 처음 시작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시범경기와)분리해서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대신 현재와 미래가 만

나는 의미로 타이거즈 레전드와 고교 올스타의 연습경기를 추진하고 있다. 또 연예인 팀의 경기도 더해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준비에도 뭔가 빠진 느낌이다. 광주시가 KIA·한국야구위원회(KBO)와 머리를 맞대고 개장식을 광주시민은 물론 야구계 전체가 반길 흥겨운 잔치로 마련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시범경기가 없는 날 개장식을 열었던 한다는 의견도 있다.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를 안방으로 해 광주의 야구 역사를 새로 만들어갈 KIA 선수와 시민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인물이 한데 어울려 새 출발을 하지 못한 점은 두고두고 개장식의 ‘욕의 티’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세계수영대회 지원법 국회 상임위 통과

‘정부 지원불가 방침’ 철회... 대회 개최 ‘청신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을 골자로 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서 치러지는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6개 주요 국제대회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조직위원회에 공무원 파견 ▲육외광고물 등 수익금 및 체육진흥 투표권(복권) 수익 배분 ▲취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 ▲방송권 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이번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진홍 문화부 장관도 17일 국회에서 세계수영대회 지원 입법을 밝혔다. 유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에는 국비가 5조2104억원을 투입하는 반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는 330여억원의 지원도 하지 않으려 한다”는 민주당 박해수 의원의 질타에 “시행령에 규정을 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새벽 6시에 건강검진? 효율성 논란

시, 아침건강검진센터 3곳 운영... 年 2천만원씩 지원

시민 의견 ‘아간센터’ 3년만에 폐쇄... 예산 낭비 우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새벽 6시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아침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효율성을 놓고 논란이다. 광주시가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해온 ‘아간건강검진센터’가 시민 예산 낭비한 채 이용객 외면 등으로 3년 만에 폐쇄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19일부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아침건강검진센터 3곳을 지정·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침건강검진센터는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4곳이 참여해 서광병원(서구 금화로), 광주일곡병원(북구 양로로), 은병원(북구 동문대로) 등 3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이들 병원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 등 국가건강검진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각 병원에 매년 2000만원씩의 운영·홍보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아침건강검진센터의 지정·운영을 놓고 예산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벽 6시부터 건강검진을 할 시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광주시는 아침건강검진센터와 반대되는 개념의 야간건강검진센터를 지원 운영했다가 폐쇄한 사례도 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밤 9시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야간건강검진센터 3곳을 지정·운영했으나 낮 시간대에 급식을 해야하고, 검진 후 전문의 진료·상담을 위해 병원을 재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 때문에 이용객의 외면을 받았다.

시는 당시 야간건강검진센터에도 병원마다 3년 동안 연간 1800만원~

2000만원씩 총 1억7400만원을 지원했다.

타업종에 비해 수익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한 시민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사업도 아니고, 여차피 병원이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인데, 수천만원씩의 시민 혈세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되물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야간 건강검진센터의 활용률이 낮고, 이용객의 불편도 커 아침건강검진센터로 전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대 시장은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아침건강검진센터 운영 의료기관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아침건강검진센터는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건강복지 실현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면서 “바쁜 일상에 검진받기 어려운 시민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의료기관에서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lucky@kwangju.co.kr

편안한 단체 관람 ‘스카이박스’ 연간 회원 모집

휴경기서만 사용 가능

KIA 타이거즈 홈구장으로 사용하게 될 광주 새 야구장(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스카이박스’(단체 관람실)가 분양된다.

KIA 타이거즈는 새 야구장 스카

이박스(26개 실)의 연간 회원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4층에 마련된 스카이박스에는 TV, 소파, 에어컨, 전용 테라스가 갖춰져 있다. 방 하나에 최대 15명이 입장할 수 있다. 휴경기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포스트시즌과 올스타전에서는 소유권이 없다.

문학구장, 사직구장, 대전구장에서도 일부 관람실을 연간 회원제로 운영 중이다.

KIA 타이거즈 측은 조만간 분양가와 운영 계획을 결정하고 회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KIA 타이거즈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편안한 단

체 관람을 위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시즌이 시작되면 회원권을 구입하지 않은 일반 관람객들도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공식 첫 경기는 4월 1일 KIA-NC전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면 ‘지자체 파산’에서 계속

거두는 세금은 8대2의 비율이지만, 예산의 지출 비중은 정부와 지방이 5대5의 비율이다. 지난 2011년 통합재정수지를 살펴보면 지출 부문에서 중앙재정은 174조9040억원,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포함)은 167조 9170억원으로 거의 비슷했다.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들어오는 돈은 적는데 지출은 많다 보니 언제나 ‘마이너스’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

구가 20%에 이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도와 각 시·군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전남도와 시·군의 연간 지방세 수입은 대략 1조5000억원 정도인데 반해, 지출 예산은 연간 약 11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조원이 넘는 정부 지원을 받아 재정을 꾸려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자체 수입은 거의 제자리인 반면 의존 수입, 즉 중앙정부의 교부세나 보조금, 지방채는 갈수록 늘면서 지방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예

산액 기준으로 올해 전남도의 자체 수입은 8116억원으로, 지난해 9024억원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은 “출자·출연기관까지 합쳐 지자체의 부채가 110조원에 이르는 등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마지막 보루인 파산제보다는 종합적인 틀 속에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분담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동시에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 131226-총-52297호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전라남도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점: 361-3515 양동지점: 362-6164
각화지점: 268-6163 풍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현천로 246번길 3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실험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협

공동본점 | 227-4474
금호지점 | 383-4474
풍암지점 | 653-4474